

교사들이 꼭 알아야 할 성탄 교리

양종규 사무엘_본지 기자

성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의미 있는 축일은 예수 부활 대축일이지만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분위기 탓에, 성탄절을 더 애타게 기다리는 교리교사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잠깐 멈추어 서서, '우리는 왜 성탄을 기다리는 것일까?',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라는 물음을 던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특집은 선생님들이 그러한 물음을 해결하는 데 조그마한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비록 교리 시간에 집적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성탄의 의미와 역사를 다루고 있어 지루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쌓는 데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동방 박사가 별을 쫓던 심정으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기 예수님의 울음소리를 조금은 더 가깝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 성탄(크리스마스)의 의미

'성탄'이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외아드님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사건을 말한다. 교회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12월 25일을 '예수 성탄 대축일'로 지내고 있다. 성탄은 하느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시작되고 생명의 빛이 세상에 도래했음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

성탄을 일컫는 또 다른 말인 크리스마스(Christmas)는 그리스도(Christ)와 미사(Mass)가 합쳐진 합성어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그리스어 번역으로, '기름을 발라 축성된 임금·대제관'이란 뜻이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자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칭호로 쓰인다. 그리고 '마스'는 '제사' 또는 '제삿날'을 뜻하는 명사어미로 라틴어 미사(Missa)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제사가 시작되었음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걸 알 수 있다.



2. 복음이 말하는 성탄

1) 마태오복음

마태오복음은 다윗의 자손(1, 1)인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자 임마누엘(1, 23)로 세상에 오셨다고 말한다. 그러나 헤로데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헤로데는 그분을 죽이려고까지 하였다고 전한다(2, 13-18). 이들과 달리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경배하러 왔다(2, 1-12).

비록 성경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6세기 초엽부터 그들은 임금이라 여겨졌다. 그리고 사람들은 세 가지 선물*(황금·유향·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기록(2, 11)으로부터 그들의 인원을 3명이라 규정하였고, 발타사르·멜키오르·가스파르라는 이름도 지어 붙였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먼저 알아보았다는 마태오복음의 내용은 복음서 집필 당시 교회 구성원 대부분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황금은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왕이심을, 유향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몰약은 참사람이심을 상징한다.

2) 루카복음

루카복음의 성탄 이야기는 마태오복음의 내용보다 훨씬 자세하다. 요셉과 마리아는 본래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에서 살았는데,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호적 등록령에 따라 요셉의 선조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다가 해산일이 차서 아기 예수를 낳았다(2, 1-7). 예수님께서 태어나 시자 주님의 천사는 목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이어서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노래했다.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뵈었다(2, 8-20).

해산할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방을 얻지 못해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누웠다. 그리고 천민으로 멸시받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뵈는다. 루카복음서 저자가 이러한 내용으로 성탄 이야기를 구성한 까닭은, 루카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상이 소외된 사람들을 아끼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천사들의 이 노래는 루카복음의 저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불렀던 하느님 찬양 시편으로, 현재는 대영광송의 첫 구절로 사용되고 있다. 대영광송은 4세기 중반부터 교황이 거행하는 성탄 미사에 들어왔다. 6세기에는 주일과 순교자 축일 미사에서도 불렀으나 주교만이 이 찬가를 시작할 수 있었다. 10세기부터는 사제들도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허용되었다.

3. 성탄의 유래

로마에서 기록된 『주교 사망록(Depositio episcoporum)』에 따르면, 로마 교회는 336년부터 12월 25일을 예수 성탄 축일로 지냈다고 한다. 12월 25일을 축일로 지내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인정받는 가설은 로마 황제 아우렐리아누스가 274년에 제국의 일치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12월 25일을 ‘무적의 태양신 탄생 축일(natalis solis invicti)’로 정해 축제를 지내도록 하였는데(12월 25일은 동지(冬至)를 막 지난 시점으로 낮이 점차 길어지기 시작하는 때이다.), 이에 그리스도인들은 퇴폐적인 태양신 숭배에 빠져 들지 않기 위해 같은 날을 예수 성탄 축일로 정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움의 태양(말라 3, 20)’이자 ‘세상의 빛(요한 8, 12)’이라는 신앙이 뒷받침되어 있었다.

한편 성탄 축제는 그리스도론 논쟁과 함께 놀랄 만큼 빠르게 전파되었다. 교회는 325년 니체아 공의회를 열어 예수님의 신성(神性)을 부인한 아



리우스주의*를 단죄하였는데, 성탄은 예수님께서 참하느님(神性)이자 참인간(人性)이라는 점을 잘 보여 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예수 성탄 축제는 12세기부터 16세기 사이에 교회와 수도원은 물론 일반 가정에까지 널리 퍼졌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성탄절 관습은 바로 이 시기에 생겨난 것이다.

*4세기경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을 부인한 이단 사상. 성부만이 진정한 신이며, 성자는 성부에 의해 창조된 신으로서 성부와 피조물 사이의 중계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교회는 325년 니체아 공의회를 열어 아리우스주의를 단죄하였고 니체아 신경을 발표하여 성부·성자·성령이 각기 완전한 신이라는 삼위일체설을 고백하였다.

4. 성탄 전례

1) 성탄 시기

성탄 시기는 ‘예수 성탄 대축일’로부터 ‘주님 세례 축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 시기는 다시 ‘주님 공현 대축일’ 이전까지의 ‘성탄 시기’와 그 이후의 ‘공현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대림 시기가 기다림과 준비를 위한 때라면, 이 시기는 기쁘고 즐거워해야 하는 시간이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구세주를 맞이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2) 예수 성탄 대축일의 세 미사

본래 교황 레오 1세(재위 440-461) 시대까지는 성탄 미사가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오전 9시쯤 단 한 차례 바쳐졌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서 베들레헴의 전례를 모방하여 5-6세기경부터 밤 전례를 거행함으로써 밤 미사가 추가되었고, 6세기 중반에 동로마 제국 사람들을 위하여 교황이 25일 새벽에 성녀 아나스타시아 성당에서 주보 성녀를 기리는 미사를 바쳤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성탄 새벽 미사로 바뀌었다. 이처럼 미사를 세 번 바치는 관행은 점차 서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갔으며 차츰 교회 안에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세 미사의 복음을 비교해 보면, 밤 미사 복음(루카 2, 1-14)의 가장 큰 특징은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아기 예수가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새벽 미사 복음(루카 2, 15-20)에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내용이 담겨 있어 ‘목자들의 미사’라 불린다. 예수님께서 훗날 말씀하신 대로, 똑똑하다는 사람들보다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자신을 먼저 드러내 보이신다는 말씀이 이미 여기에서 실현된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 1, 14)는 소식을 전하는 낮 미사의 복음은 성탄 축일의 정점을 이룬다.

3) 성탄 팔일 축제

7세기까지 ‘팔일 축제’는 교회의 가장 큰 축일인 예수 부활 대축일에만 허용되었다. 성탄을 팔일 축제로 지낸다는 것은 그만큼 성탄의 기쁨과 의미가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성탄 팔일 축제 안에는 대축일과 특별한 축일만 허용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축일로는 그리스도교의 첫 순교자인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12월 26일)’과 열두 사도 중 한 사람이자 복음사로 알려진 ‘성 요한 사도 복음사가 축일(12월 27일)’이 속한다. 또한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살해된 아기들을 기억하기 위한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12월 28일)’도 있다. 한편 성탄 팔일 축제 기간 안에 주일이 있으면 그날을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로 지낸다. 성탄 팔일 축제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로 끝난다.



사도 성 요한

4) 주님 공현 대축일

공현(公顯)이란 ‘나타남’ 혹은 ‘나타내어 보여줌’ 등의 의미를 갖는 말로써, 주님 공현 대축일은 아기 예수가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낸 사건을 기념하는 축일이다. 한국 교회는 이 축일을 1월 2일~8일 사이의 주일에 지내고 있다.

주님 공현 대축일은 전례상 성탄과 같은 대축일이다. 성탄이 강생(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의 신비를 보여 준다면, 공현은 인류의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의 약속을 드러내 보여 준다. 동방 교회에서는 4세기까지 예수님의 성탄을 주님 공현 대축일에 기념할 정도로 대단히 장엄하게 전례를 거행하였다.

5) 주님 세례 축일

주님 세례 축일은 예수님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축일이다. 성경은 세례 당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교부들은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이 선포되고, 메시아로 파견되었다고 보았다.

주님 세례 축일은 주님 공현 대축일 후 첫 주일에 지내며(단, 주님 공현 대축일이 1월 7일이나 8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월요일이 주님 세례 축일이 된다.), 이 축일로 성탄 시기가 끝이 난다. 이후로는 연중 시기가 시작되므로 주님 세례 축일 저녁 미사가 끝나면 구유를 치운다.

5. 성탄을 풍성하게 하는 것들

1) 구유

현재 전해지는 구유를 만드는 풍습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1223년 그레치오 성당에 마구간을 만들고 구유와 나귀 등을 놓았는데, 이는 신자들이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강생의 신비를 보다 생생히 느끼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분의 겸손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였다.



구유를 장식하는 인물이 궁금하다면 마태오복음 2장과 루카복음 2장을 읽어 보면 된다. 루카복음을 통해서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목동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마태오 복음에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가 등장한다. 이 밖에도 소와 나귀로 구유를 장식하는데, 그 이유는 이사야 예언서 1장 3절의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이 놓아 준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구나.”라는 구절에서 비롯한 것이다.

2) 성탄 나무(크리스마스 트리)

모든 문화 안에서 푸른 나무는 생명, 성장 등을 나타낸다. 성경에서도 나무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나무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성탄절에 성탄 나무를 장식하게 된 것은 16세기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다. 이후 1700년대 후반에는 펜실베이니아주로 이주한 독일인 이민자들이 미국 땅에 성탄 나무를 처음으로 소개했고,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이었던 알버트가 영국 왕실에 최초로 성탄 나무를 세우면서부터 이러한 풍습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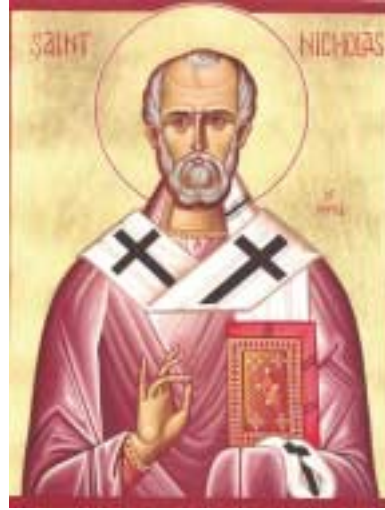
과거에는 성탄 나무를 별, 촛불, 사과 등으로 장식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빛(요한 8, 12)이시기에 성탄 나무의 별과 촛불(현대에는 전구)은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성탄 나무에 사과를 달았던 이유는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선사하시는 분이라는 믿음과 사과가 생명의 열매라는 상징성 때문이었다. 요즘은 사과를 대신해 동그란 방울을 달고 있다.



3) 산타클로스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Santa Claus)’는 성 니콜라오(270(?)~341) 성인에게서 유래한다. 니콜라오 성인은 3세기 후반, 지금은 터키에 속하는 리키아의 파타라라는 지역의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다. 평신도였던 그는 신자들과 사제들에게 존경을 받다가 리키아의 작은 항구도시 미라의 주교로 선출되었다. 그는 자신의 관구를 자애와 헌신, 엄격한 그리스도교 교리에 따라 보살폈다. 이후 사람들은 성인이 세상을 떠난 12월 6일을 축일로 기념하였고, 그날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는 관습이 생겨났다.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 니콜라오 성인의 축일에서 성탄 축일로 바뀌게 된 것은 개신교와 관련이 있다. 개신교에서는 성인 공경을 금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날이 인접한 성탄 축일로 점차 옮겨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성인의 모습도 점차 희미해져 버렸다. 니콜라오 성인은 뱀사람들의 수호자, 죄수들과 어린이, 또 러시아의 수호 성인이다.



성 니콜라오